

미국 오로라, 2세대 무인 자율주행 트럭 출시로 화물운송 상용화 본격 확대

해당국가	미국	기관(기업)	Aurora Innovation	동향분야	기술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로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□ 미국 오로라는 2세대 무인 자율주행 트럭을 출시하고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대규모 상용화와 서비스 확대를 본격 추진

- 차세대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적용하여 무인 운행의 안전성과 장거리 운행 내구성을 높이고 대규모 상용 운행 기반을 확보
 - 차세대 하드웨어는 연산 성능을 향상하고 약 100만 마일(약 160만km) 이상의 주행 내구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 장기간 상용 운행에 대응
 - 운전자 없이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검증하는 세이프티 케이스(Safety Case)를 완료하고, 2025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약 44만 마일(약 70만km)의 무인 주행 실적을 확보
- 차량 개조와 자율주행 하드웨어 통합 공정을 표준화하여 무인 자율주행 트럭의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고, 상용 운행 노선 확대를 위한 생산 기반을 마련
 - 인터내셔널 LT 시리즈 모델을 기반으로 Roush사가 차량 개조와 차세대 자율주행 하드웨어 통합을 전담하고, 핵심 시스템 이중화를 적용해 운행 안정성을 강화
 - 생산 공정을 표준화해 연내 연간 1,000대 규모의 무인 자율주행 트럭 생산체계 구축을 추진하고, 미국 남부 선벨트 지역 10개 노선으로 운행을 확대

□ 대규모 차량 공급체계와 글로벌 산업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의 상용화를 확대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 추진

- 무인 운행 노선을 확대하고 고객사의 차량 도입을 본격화하여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시장 확산 기반을 강화
 - 2세대 무인 트럭 도입으로 수백 대 규모의 상용 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, 고객사의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 트럭 500대 도입 계획을 통해 시장 수요를 확대
 - 오로라 드라이버(Aurora Driver)는 화물트럭과 승객용 차량에 모두 적용 가능한 범용 플랫폼으로 서비스형 운전(DaaS) 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
- 글로벌 운송·기술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, 안정적인 상용 서비스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
 - 페덱스(FedEx), 볼보트럭(Volvo Trucks), 우버 프레이트(Uber Freight), 엔비디아(NVIDIA), 팩카(PACCAR) 등과 협력해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
 - 차량 개발부터 생산·운송 서비스까지 산업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운영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고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상용화를 지속 확대

※ 출처 : Aurora Innovation(2026.07.22), Aurora Launches Second-Generation Driverless Trucks in U.S. to Meet Customer Demand